

박바울 목사님

그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저도 건강히 지내고 있으며, 콜롬비아 농아인들도 모두 건강하게 선교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콜롬비아에 도착한 이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룻기, 로마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순서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업상 평일 참석이 어려운 농아인들을 위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출석하고 배우는 모습과 이전보다 성경 지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믿으며, 기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주일)에는 성경공부를 마친 후 회의를 가졌습니다. 농아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 8일(주일)에는 성경공부를 마친 후 한식당에서 한식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월 10일부로 기존에 머물던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전하였고, 4월 10일까지는 성경을 계속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방의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방문 시간과 장소 문제로 아직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다른 지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농아인들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신앙 상담 및 가정 상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농아인 사회는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자살과 가정 불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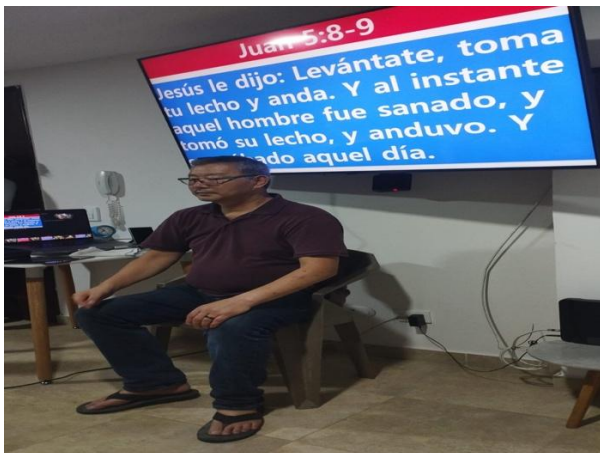
기도 제목

1. 농아인들에게 복음이 충분히 전해질 수 있도록
2. 콜롬비아 내전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3. 파나마와 자메이카에 농아 교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4. 사역자의 건강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메데린에서 성경공부(월요일 -목요일)



메데인에서 성경공부(토요일,일요일)





피자를 제공하면서 회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요리 및 제공



한인 식당



기타

